

세계시장 장악한 의료기기 업체의 에디슨

마루야마 지로 알에프시스템 사장

▶ 1월 10일 오세아리 편집부 인터뷰

그는 '의료기기 업체의 에디슨'이라 불린다. 알에프시스템(RF-SYSTEM)의 마루야마 지로(丸山次郎) 사장. 상식을 초월한 발상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각종 의료기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을 휩쓸고 있는 그를 '최대의 발명가'라 부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너무 엉뚱한 발상이라 하여 '돈키호테'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이 회사의 최좌측 부싱구장 내 카메라라는 미국시장 점유율 85%에 달한다. 2001년 협술 내시경 '노리키즈'에 이어 2007년 '사이카'를 선보이면서 차세대 내시경 분야에서 지존의 자리를 굳히게 됐다. 기술자, 연구자, 성공한 경영자로서 국내외의 각종 발표회는 물론 학술대회 발표까지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의료기기 업계는 물론 벤처기업 경영자, 기업가들 모두는 물론 이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투박하고 거무스레한 얼굴에서 진지함과 강한 믿음이 넘쳐나는 그를 만났다.

동계올림픽 개최되었던 나가노에 '알에프'의 등지를 본 것은 1993년, 추겨를 결한 9.9m(33평)짜리 초그만 단칸방에서 아내와 단둘이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키하바라에서 부품을 사다가 아내와 둘이서 붙이고 납땀하고 케이스 끼워 완성하면 직접 아키하바라 점포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14년 후, 사원 170명의 작은 몸집으로 세계시장을 누비는 일본의 대표적인 중견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창업 초기, 매출은 없어도 연구 개발을 쉬지 않았다. 지금도 24시간 연구에 매달린다 하여 이 회사는 '나가노의 불야성'이라 불린다. '만 원도 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다'가 저문인 그는 집념의 사나이로 통한다.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정열과 연구력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RF & PAN



RF & PAN 시술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카메라

"창업 당시에는 돈도 사람도 없었어요. 있었대면 오히려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어 보이겠다는 생각이었어. 끝이없어 그런 에너지가 있었지요."

그는 1947년 나가노(長野) 신슈(信州)의 초그만 불공소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온 가족이 동원해 할공소 있을 거들어야만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다. 목욕이 물을 두드려면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자란 마루야마는 소년 시절부터 손재주가 뛰어났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리디옴 만들어 팔아 용돈을 벌었고, 초등학교 5학년부에는 세계적인 천재상가 아키하바라를 잇따라 보았다. 천천히 유산가 걸리는 거리를 달려 2~3시간 이틀도 오는 여정이었지만 마냥 기뻐했다.

"모든 게 다 보물로 보였어요. 아키하바라로 부를 사러 가는 날에는 흥분해서 전날 잠을 못잠 지었어. 그것이지요."